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중국의 인프라 시장 전망과 시사점
- 중국 인프라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목 차

■ 중국의 인프라 시장 전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1
2. 중국의 인프라 시장 전망	2
3. 對 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	6
4. 시사점	8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 요

최근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0% 초반대로 지난 2009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운수·창고 등을 나타내는 인프라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18% 이상을 보이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GDP 대비 비중도 2005년 약 12%에서 2015년 약 19%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 인프라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국의 인프라 시장 전망

중국의 인프라 시장은 전체 인프라 시장,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전체 인프라 시장) 에너지 인프라 시장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5년 2,119억 달러에서 2020년 2,965억 달러로 연평균 약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문별 인프라 시장 비중을 보면, 2015~2020년까지 전체 인프라 시장 중 에너지 인프라 시장 비중이 각각 59.1%에서 62.7%로 중국 인프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 시장) 철도 부문을 중심으로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거대 인프라 건설이 예상된다. 중국의 교통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5년 856억 달러에서 2020년 1,105억 달러로 6년간 연평균 5.2%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철도 부문은 2020년 전체 교통 인프라 시장의 약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통 인프라 건설은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6~2020년까지 철도 부문에서 건설할 거리는 중국내에서만 약 5,127 km에 이를 계획이며, 동부-서부, 중부-서부, 동부-중부 등 동부와 중서부를 연결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예상된다.

(에너지 인프라 시장) 발전 및 송신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동을 잇는 중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5년 1,263억 달러에서 2020년 1,860억 달러로 연평균 8.1% 성장이 예상된다. 부

문별로 보면 2015~2020년까지 발전·송신 부문이 전체 에너지 인프라 시장의 약 85%를 차지할 전망이며, 물 기초시설도 동기준 2015년 10.5%에서 2020년 11.0%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2020년까지 중·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중대형 에너지 인프라 건설 투자가 동부와 서부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본토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인프라 건설은 올해까지 완공될 전망이다.

■ 對 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

한국의 對 중국 인프라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對 중국 건설수주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對 중국 건설수주 규모는 2015년 현재 15.1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2015년까지 對 중국 건설수주는 지난 10년간 전체 해외 건설수주의 평균 3% 미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對 중국 건설수주 건수도 2000년 5건에서 2015년 101건으로 약 20배가 급증했으나, 1건당 건설수주 규모는 2008년 3,000만 달러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 1,500만 달러 수준이다. 둘째, 2005~2015년 동안 對 중국 건설수주 중 건축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통신, 전기, 산업설비, 건축, 토목 등 6가지 공종별로 볼 때, 2005~2015년까지 10년간 對 중국 건설수주 비중은 건축 부문이 평균 60%를 상회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1건당 건설수주 규모는 산업설비 부문이 2005년 3,200만 달러에서 2015년 7,300만 달러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토목 전기 등 부문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통신 및 용역 부문은 건수에 비해 건설수주 규모가 미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시사점

올해부터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지역별 경제벨트, 일대일로 등 대내외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對 중국 인프라 사업 진출에 전 방위적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최근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거대 인프라 투자가 가속되는 만큼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겨냥한 다양한 對 중국 인프라 건설 분야 발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과 凡아시아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극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1.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 최근 중국의 투자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
 - 최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10% 이상의 증가세가 지속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05년 27.2%에서 2009년 30.5%로 증가하다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다 2015년 10.0%로 하락
 - 반면,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2005년 28.0%에서 2009년 42.5%로 급증하다 2011년 2.8%로 급락했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015년 17.0%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
 - 한편, 중국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은 약 20%에 이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냄
 - 총고정자산투자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은 2005년 29.2%에서 2015년 23.8%로 20%대 비중이 지속
 - 더욱이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은 2005년 11.8%에서 2015년 19.4%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인프라 시장 전망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의 인프라투자 증가율 추이 >
(증가율, %)



< 중국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 >
(비중,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인프라 투자는 교통·운수·창고, 수자원·환경, 전력·가스·수도 등을 의미.

2. 중국의 인프라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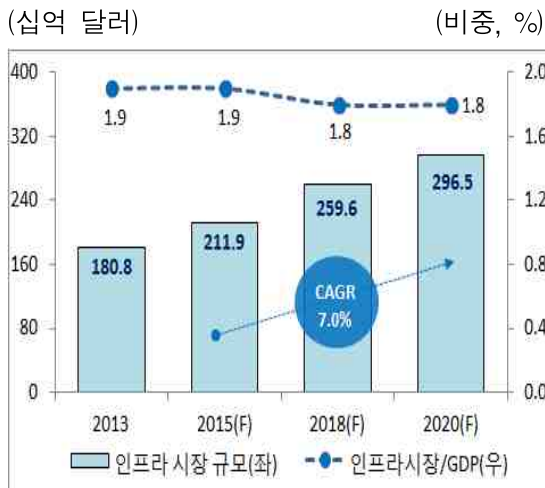
1) 중국의 부문별 인프라 시장

① 인프라 시장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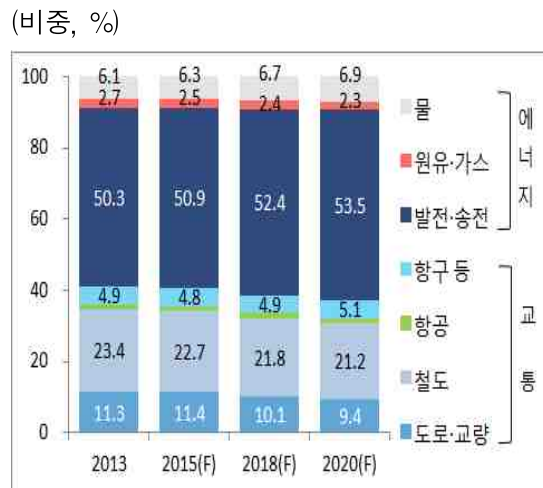
○ 중국의 인프라 시장은 발전 플랜트 등 에너지 인프라 시장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함

- 중국의 인프라 시장은 2015~2020년 동안 연평균 약 7% 성장 예상
 - GDP 대비 인프라 시장 규모 비중은 2013년 1.9%에서 2020년 1.8%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3년 1,808억 달러에서 2020년 2,965억 달러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부문별 인프라 시장 비중을 볼 때, 전체 인프라 시장에서 발전·송신 부문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 2015~2020년까지 전체 인프라 중 에너지 인프라 규모 비중은 각각 59.1%에서 62.7%로 중국 인프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특히, 에너지 인프라 부문 중 발전 및 송전 계통망 부문의 인프라 비중은 2015~2020년 50%를 지속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동기간 교통 인프라는 38.9%에서 35.7%로 30%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인프라 시장 규모 >



< 부문별 인프라 시장 비중 >



자료 : BMI(2015 Q4), "China Infrastructure Report".

주 : 인프라 시장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산업 부가가치를 합친 규모를 의미.

② 교통 인프라

○ 교통 인프라 시장은 철도 부문을 중심으로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거대 인프라 건설이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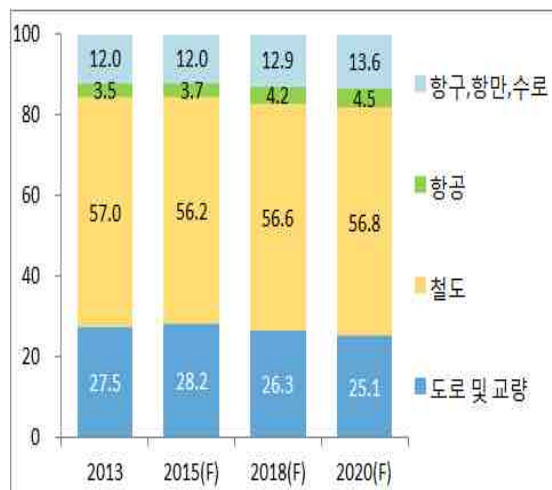
- 중국의 교통 인프라 시장은 철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

- 중국의 교통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5년 856억 달러에서 2020년 1,105억 달러로 6년간 연평균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 볼 때, 2015~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시장 비중은 철도, 도로·교량, 항구·항만·수로, 항공 등 부문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특히, 철도 부문은 전체 교통 인프라 시장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등 향후 중국 교통 인프라 시장을 주도할 전망

- 한편, 향후 교통 인프라 건설은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대규모 건설이 진행될 예정

- 2016~2020년까지 철도 부문에서 건설할 거리는 약 5,127 km에 이르며, 동부-서부, 중부-서부, 동부-중부 등 동부와 중·서부를 연결하는 건설이 계획됨
- 또한, 동기간 도로 및 교량 부문에서 건설될 길이는 약 2,600 km에 이르며, 지역별로는 동부 연해와 사천 등 서부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 중국의 교통 인프라 시장 비중 >



자료 : BMI(2015 Q4)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 중국의 교통 인프라 건설 플랜 >



자료 : BMI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2016~2030년간 인프라 건설 플랜.
 2. 연도가 누락된 플랜은 생략.

③ 에너지 인프라

○ 에너지 인프라 건설은 발전 및 송신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동을 잇는 중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이 진행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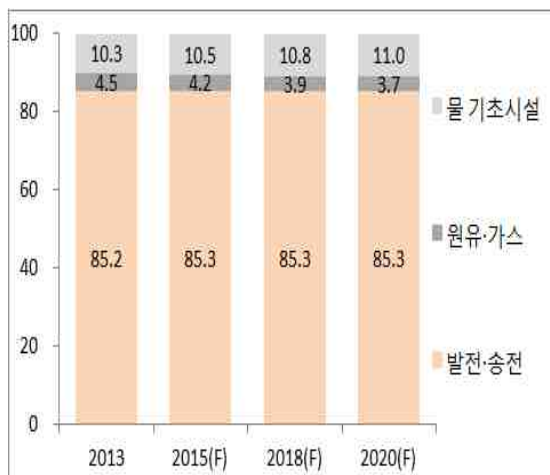
- 에너지 인프라는 발전 및 송신 부문이 80% 이상을 차지

-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5년 1,263억 달러에서 2020년 1,860억 달러로 연평균 8.1% 성장 예상
- 부문별로 볼 때, 2015~2020년까지 에너지 인프라 시장 중 비중은 발전·송신, 물 기초시설, 원유·가스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날 전망
- 특히, 동기준 발전·송신 부문은 약 85%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낼 것이며, 물 기초시설 등 2015년 10.5%에서 2020년 11.0%로 상승이 예상

- 한편, 향후 2020년까지 중·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중대형 에너지 인프라 건설 투자가 진행될 예정

- 중국의 국경 간 중대형 에너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향후 2020년까지 중·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동부 및 서부라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
- 또, 중국 본토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인프라 건설은 올해까지 완공될 전망

<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 규모 >



자료 : BMI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플랜 >



자료 : BMI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2016~2030년간 인프라 건설 플랜.
 2. 연도가 누락된 플랜은 생략.

< 참고 > 중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2015~2016)

○ 최근 중국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투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5~2016년 2년간 10조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 및 진행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400개 프로젝트에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교통인프라 등 7개 주요 업종에 10조 위안이 투입될 예정
 - 이번 인프라투자 계획의 투자재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국유기업, 은행 대출, 기타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계획
 - 10조 위안 중 2015년에 이미 7조 위안 정도가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청정 에너지, 운송, 광산, 의료(헬스케어) 등 부문에 투자
 - 나머지 3조 위안은 올해 2016년 말까지 투자 완료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올해 중국 주도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되면서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확산

< 2015~2016년 중국 인프라투자 실행계획 (10조 위안 규모) >

구 분	주 요 내 용
교 통	- 고효율 철도망, 도로망 건설 · 중서부 철도간선건설, 도시연결 철도망 건설, 거점도시 연결 도로망 건설 등 - 항공, 하천운송 네트워크 구축 · 공항 건설, 운하 등 내륙운송로 건설 등
전력/에너지	- 서부지역 및 농촌지역 전력망 구축 · 동부지역 전력을 서부지역으로 송출, 농촌지역 전력망 확대 - 연해지역 원전설비, 풍력/태양광 발전 개발 - 가스 파이프라인 및 저장시설 건설
수자원환경	- 중대규모 수리시설 공정 실시 · 수문, 갑문, 발전소, 댐 등을 포함한 종합 수리건설 등
환 경	- 국토 기초생태환경 정비, 대기오염 및 수질환경 개선 · 석탄소비량 감축 · 국토 녹지율 상향 제고
기 타 (정보통신, 헬스케어)	- 정보통신 인프라설비 구축 - 보건/양로 서비스 확대, 스포츠 시설 확대

자료 : 國家發展与改革委員會.

3. 對 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

○ **국내의 對 중국 건설수주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해외건설수주 중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

- 對 중국 건설수주는 전체 해외건설수주의 약 3% 수준

- 국내의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는 2000년 54.3억 달러에서 2010년 715.8억 달러로 급증하다 이후 하락 양상을 보임
- 對 중국 건설수주 규모는 2015년 현재 15.1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2015년 간 전체 해외 건설수주의 3% 미만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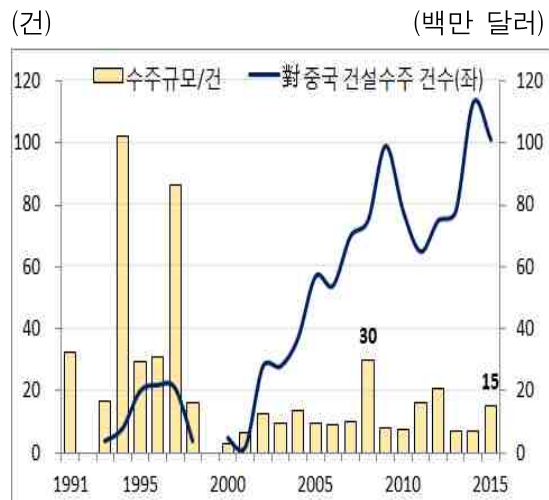
- 한편, 국내의 對 중국 건설수주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1건당 건설수주 규모는 2008년 이후 큰 폭의 증가가 지연

- 전체 해외건설수주 건수는 2000년 123건에서 2015년 697건으로 약 6배 증가하였고, 對 중국 건설수주 건수도 동기간 5건에서 101건으로 약 20배 급증
- 더욱이 전체 해외건설수주 건수 중 對 중국 건설수주 건수 비중은 2005~2015년 평균 약 14.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다만 對 중국 건설수주 1건당 규모는 2000년 들어 2008년 3,000만 달러를 보인 후 점차 하락하여 2015년에는 1,500만 달러를 나타냄

< 對 중국 건설수주 규모 >



< 對 중국 건설수주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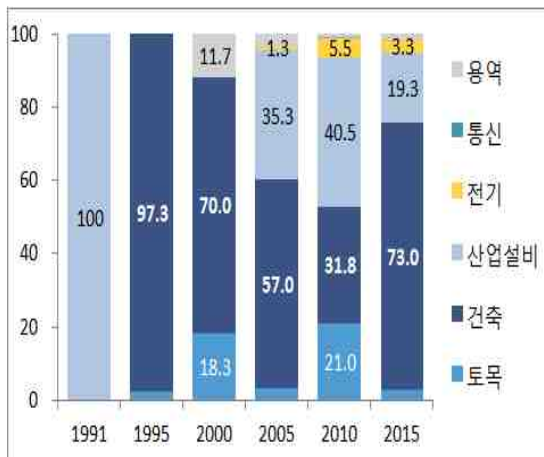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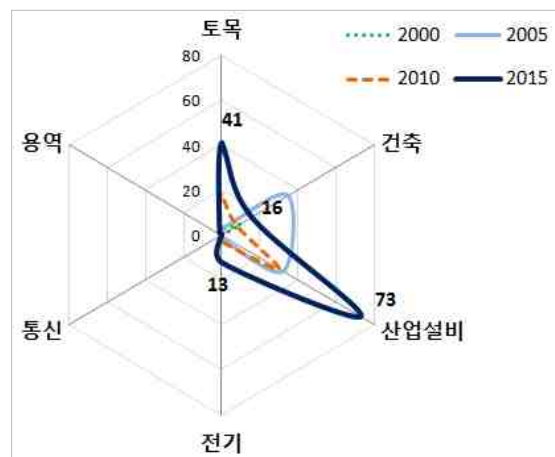
○ 공종별로 볼 때, 2005~2015년 동안 對 중국 건설수주 중 건축 부문 비중이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1건당 수주 규모는 산업설비, 토목, 건축 등 부문에서 대규모 수주가 성사되는 것으로 나타남

- 對 중국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
 - 공종별로 볼 때, 1993~2015년까지 건축, 토목, 산업설비 등 3가지 분야가 전체 對 중국 건설수주의 90% 이상을 차지
 - 특히, 건축 부문은 2005~2015년까지 10년간 평균 약 60%를 상회하는 등 對 중국 건설수주의 대부분을 차지
 - 한편, 최근 10년간 전기 부문은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통신, 용역 등과 함께 대 중국 건설수주에서 미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1건당 對 중국 건설수주 규모는 2000년 중반 이후 산업설비 부문이 건당 비교적 대규모 수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설비 부문의 1건당 對 중국 수주 규모는 2005년 3,200만 달러에서 2015년 7,300만 달러로 지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토목 및 전기 부문도 동기간 각각 300만 달러, 200만 달러에서 4,100만 달러, 1,300만 달러로 최근 대규모 수주 양상을 보임
 - 다만, 통신 부문은 건설수주 건수가 미미할 뿐 아니라, 용역 부문은 건수에 비해 건설수주 규모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 對 중국 건설수주 비중 >
(비중, %)



< 공종별 對 중국 건설수주/건 >
(백만 달러)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산업설비는 가스시설, 발전소, 화학공장, 정유시설, 제철소, 원유시설, 정유공장, 일반공장 등을 포함함.

4. 시사점

- 올해부터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지역별 경제벨트, 일대일로 등 대내외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對 중국 인프라 사업 진출에 전 방위적 플랜 마련이 필요
 - 첫째, 최근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거대 인프라 투자가 가속되는 만큼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 등 400개 프로젝트 가운데 100개 프로젝트가 올해 진행될 예정
 - 또, 2020년까지 중·서부 중심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가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확대될 중국의 새로운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필요
 - 둘째, 향후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겨냥한 다양한 對 중국 인프라 건설 분야 발굴 모색
 - 향후 5년간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교통, 전력/에너지,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전망
 - 이에 따라, 건축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對 중국 건설수주를 통신, 전기 등 공종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 구상 모색
 - 셋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과 凡아시아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극 활용 방안도 검토
 - 향후 중국 내에서는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신 실크로드 라인 형성으로 중서부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
 - 더욱이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凡아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유리해질 아시아 시장간 물류 체인 활용 방안 구축안 마련
 - 동시에 한·중 FTA와 한·ASEAN 등을 통한 동북아와 아시아지역을 잇는 중장기적 경제교류 로드맵 마련도 필요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별첨 1】 중국의 교통인프라 건설 계획(2016~2030년)

< 중국의 교통인프라 건설 계획 >

구분	지역	규모	완공시기
공항	청두 티안푸 국제공항(사천)	- 가치: 112억 달러 - 수용인구: 4,000만/년	2025
	칭다오 공항(산둥)	- 가치: 57.3억 달러 - 수용인구: 3,800만/년	2017
	상하이푸둥 국제공항 확장	- 가치: 7.3억 달러 - 길이: 3.4 km	2018
	인추안 허둥 공항 확장(닝시아)	- 가치: 4.9억 달러	2020
항구	텐진항구 확장	- 화물 수용량: 900톤	2016
	광양 하천항(사천)		2030
	난창항 신 화물터미널(장시)	- 가치: 0.7억 달러	2016
	주하이항 컨테이너 터미널(간수)		2018
	홍완 어항(광둥)	- 가치: 6.5억 달러	2018
철도	청두 메트로 프로젝트 phase 1(사천)	- 길이: 39.4 km	2019
	청두 메트로 프로젝트 phase 2(사천)	- 길이: 9.6 km	2019
	청두 메트로 프로젝트 라인 6	- 길이: 29 km	2020
	총칭 창샤 라인	- 가치: 61억 달러 - 길이: 339 km	2020
	진안 메트로 phase 1(산둥)	- 가치: 70억 달러 - 길이: 80.6 km	2019
	텐진 메트로 라인 4	- 길이: 11.1 km	2018
	보하이 해저터널(산둥)	- 길이: 123 km	2026
	청두-쿤밍 철도 확장 프로젝트	- 길이: 737 km	2020
	난창 철도 수송 프로젝트 라인1,2(장시)	- 길이: 69.2 km	2020
	산둥 윤청 탄광 철로	- 길이: 8.5 km	2016
	실크로드 경제 벨트 철로		2030
	송지양 전차연결선(상하이)	- 길이: 31 km	2017
	홍콩 고속철도 종점 프로젝트(선전, 광둥)	- 길이: 116 km	2018
	HaJia(하얼빈-지아무시)_헤이룽장	- 길이: 343 km	2019
	창춘시 메트로 프로젝트(지린)	- 길이: 18.5 km	2017
	청두 메트로 프로젝트(사천)	- 길이 81.4 km	2017
	청두 메트로 광두-티안푸(사천)	- 길이: 14.3 km	2017
	청두 메트로(사천)	- 길이: 18.8 km	2018
	헤밀턴-EJINA(신장)	- 길이: 628.8 km	2017
	항주 메트로(저장)	- 길이: 12.5 km	2016
	항주 메트로(저장)	- 길이: 21.3 km	2017
	항주 메트로 위항-항주남(저장)	- 길이: 48.6 km	2019
항주 메트로 빈장하이테크 개발구(저장)	- 길이: 27 km	2019	

구분	지역	규모	완공시기
철도	칭하이-신장 철로	- 가치: 62억 달러 - 길이: 1,213 km	2020
	상하이-쿤밍 고속철로	- 길이: 2,066 km	2017
	선마오 장먼-마오밍(광둥)	- 가치: 96.8억 달러 - 길이: 387 km	2018
	선전 메트로 푸티엔-핑후(광둥)	- 가치: 43.97억 달러 - 길이: 29.9 km	2016
	선전 지하철(광둥)	- 길이: 25.35 km	2016
	쑤조우 철로(장쑤)	- 가치: 50억 달러 - 길이: 43.5 km	2019
	텐진 메트로 확장	- 가치: 26.5억 달러 - 길이: 23.9 km	2016
	우지우(후베이)-지우장(장시)	- 가치: 11.97억 달러 - 길이: 198 km	2017
	우한-시안 고속철도(후베이)	- 가치: 85.81억 달러 - 길이: 391.5 km	2019
	샤먼 메트로(푸젠)	- 길이: 3.2 km	2018
	정조우 메트로(허난)	- 가치: 29.6억 달러 - 길이: 25.2 km	2019
도로 · 교량	리조우-난닝 고속도로(광시)	- 가치: 32.5억 달러 - 길이: 248 km	2018
	차오조우-산토우 고속도로(광둥)	- 가치: 21.36억 달러 - 길이: 53.9 km	2019
	프라그란트 교량(광둥)	- 가치: 6.72억 달러 - 길이: 20 km	2017
	헤이룽장 공공교통 시스템 블루스톤 마우스(닝시야)	- 가치: 4.31억 달러 - 길이: 27.85 km	2020 2016
	후이난-바이산(지린)	- 가치: 13.41억 달러 - 길이: 81.66 km	2018
	모위-헤이티엔(헤이티엔, 신장)	- 가치: 4.51억 달러 - 길이: 74 km	2017
	바이스-헤치 고속도로(광시)	- 가치: 25.5억 달러 - 길이: 177 km	2018
	바오자-한중 고속도로(간쑤)	- 가치: 55.44억 달러 - 길이: 375 km	2017
	차오조우-꾸샹 동산(광둥)	- 가치: 12억 달러 - 길이: 64.5 km	2017
	홍메이 남로-진하이(상하이)	- 길이: 19.5 km	2016
	후아지-룽추안(광둥)	- 가치: 64.9억 달러 - 길이: 365.65 km	2017
	미안양-지우자이꼬우(사천)	- 가치: 49.1억 달러 - 길이: 218.5 km	2018
	산멘완 교량(저장)	- 가치: 20.77억 달러 - 길이: 54.5 km	2018
	쑤조우-지우취엔 위생발사센터 고속도로(간쑤)	- 가치: 12.6억 달러 - 길이: 242 km	2016

구분	지역	규모	완공시기
도로 & 다리	타이조우만 교량(저장)	- 가치: 39.44억 달러 - 길이: 102.38 km	2018
	웬추안-메강 고속도로(사천)	- 가치: 53.08억 달러 - 길이: 173 km	2020
	우한 양쯔강 교량(후베이)	- 가치: 11.7억 달러 - 길이: 4.13 km	2019
	쑹안 국제공항(샤먼)	- 가치: 3억 달러 - 길이: 14.2 km	2018
	쑹궈-간시엔(장시)	- 가치: 9.9억 달러 - 길이: 71.8 km	2016
	씨쑹 교각 -항조우 국제공항(저장)	- 가치: 9.8억 달러 - 길이: 19.55 km	2016
	야안-강딩 고속도로(사천)	- 가치: 38.5억 달러 - 길이: 133.97 km	2017
	이양-마지탕 고속도로(후난)	- 가치: 7.8억 달러 - 길이: 58 km	2017

자료 : China Infrastructure Report Q4 2015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별첨 2】 중국의 에너지인프라 건설 계획(2016~2030년)

<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계획 >

구분	지역	규모	완공시기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중국-러시아 서부 파이프라인		2020
	중국-러시아 동부 파이프라인	- 규모: 61bcm/year	2019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 천연가스 라인		2020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중국		2016
발전·송신	이명 펌프저장 하이드로 발전소(산둥)	- 가치: 10.1억 달러 - 규모: 1,200 MW	2021
	4세대 핵발전(장쑤)		2021
	진코태양 태양광 발전	- 가치: 8.1억 달러 - 규모: 500 MW	2019
	텐진 궈디엔 전력발전(텐진)	- 가치: 2.1억 달러 - 규모: 150 MW	2018
	후베이 수이조우 화력발전	- 가치: 23.7억 달러 - 규모: 4,000 MW	2017
	타이산 핵발전(광둥)	- 가치: 83억 달러	2016
	쓰촨 따두강 하이드로파워(쓰촨)	- 가치: 15.9억 달러	2017
	바이허탄 하이드로파워(쓰촨)	- 가치: 93.6억 달러 - 규모: 13,050 MW	2019
	CGN 루동 역외 시연프로젝트(장쑤)	- 가치: 4.6억 달러 - 규모: 150 MW	2016
	팡청강 핵발전(광시)	- 규모: 1,080 MW	2016
	관인옌 댐(윈난-쓰촨 접경)	- 규모: 3,000 MW	2016
	하이난 치웅중 펌프저장 하이드로 발전	- 규모: 600 MW	2017
	하이양 핵발전(산둥)	- 가치: 130억 달러 - 규모: 2,200 MW	2016
	홍옌강 핵발전(랴오닝)	- 가치: 40.1억 달러 - 규모: 2,160 MW	2020
	호우즈옌 하이드로파워 발전(쓰촨)	- 가치: 30억 달러 - 규모: 1,700 MW	2016
	장쑤 쑹수이 풍력발전	- 가치: 7.2억 달러 - 규모: 202 MW	2016
	마오징 풍력발전(칭양)	- 규모: 400 MW	2016
	닝더 핵발전(푸젠)	- 규모: 1,080 MW	2016
	핑하이만 풍력발전(푸젠)	- 규모: 50 MW	2016
	큐슈에 하이드로발전(쓰촨)	- 규모: 246 MW	2017
	싼먼시 핵발전	- 가치: 58.8억 달러 - 규모: 6,000 MW	2016
	스다오만 핵발전(산둥)	- 가치: 48억 달러 - 규모: 200 MW	2017
	스왕장코우댐(쓰촨)	- 가치: 58억 달러 - 규모: 2,000 MW	2022

구분	지역	규모	완공시기
발전·송신	쓰촨 따유허 하이드로발전	- 가치: 34.6억 달러 - 규모: 2,600 MW	2018
	티엔완 핵발전(장쑤)	- 규모: 2,120 MW	2018
	통크린 하이드로발전(쓰촨)	- 규모: 600 MW	2016
	UHVDC 송신(간수)	- 가치: 42.8억 달러 - 규모: 800 kV	2017
	우둥허 하이드로발전(윈난)	- 규모: 8,700 MW	2020
	양장 핵발전(광둥)	- 가치: 121억 달러 - 규모: 6,480 MW	2019
	웅닝 하이드로발전(푸젠)	- 규모: 57.6 MW	2018
물 기초시설	총칭 허썬 자치구 폐수처리	- 규모: 7.3 백만M3/year	2041
	총칭 시노 폐수처리	- 가치: 21.9억 달러 - 규모: 146 백만M3/year	2036
	Bayannaer 수질환경관리(네이멍구)	- 가치: 1.6억 달러	2017
	담수처리(탕산-베이징)	- 가치: 27억 달러 - 규모: 18.2 백만M3/year	2019
	후아이 팡 물재생(베이징)	- 가치: 1.56억 달러 - 규모: 219 백만M3/year	2016

자료 : China Infrastructure Report Q4 2015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